

29~내달 1일 DJ센터서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우주인 이소연과 대화 ▶ 청소년 광주선언도

청소년들이 끼와 열정을 발산하는 무대인 제4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Youth Expo 2008)가 오는 29일~6월1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광주시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광주 출신 한국 최초 우주인 이소연씨가 참석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모은다. 이씨는 31일 김대중컨벤션센터 전시장 메인무대에서 '대한민국 최초 우주인 이소연과 청소년과의 만남 행사'를 갖는다.

행사 마지막 날인 6월 1일에는 바실 페르난도 아시아 인권 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시아 청소년 인권과 평화를 주제로 한 청소년 포럼이 열리고 '아시아 청소년 광주선언도' 채택된다.

취업정보·진로 등 290개 부스

◇눈길 끄는 전시관= '푸른빛 희망관'은 청소년의 모든 것을 아우르는 대표적인 전시관이다. 이번 행사에 선보이는 290개 부스 가운데 160개 부스가 배치돼 있다.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적성을 알려주고 직업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취업정보 제공, 적성검사, 진로 탐색 탐험 등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학교 폭력과 '왕따' 문제를 조명하고 고민해보는 폭력·인권 부스를 비롯해 청소년 건강 크리너, 인터넷 중독 예방 상담 등 '상당·심터' 부스도 운영된다.

'붉은빛 기회관'에서는 대학교 이색학과 소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소비의식을 일깨우는 경제플러스 존도 운영된다. 이색학과 소개 프로그램에서는 자동차와 응급구조학과 등 특성화된 학과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물물교환 장터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소비자와 판매자 역할을 분담, 실물경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진행된다.

'황금빛 성취관'에서는 대한민국 우주인 이소연씨와의 만남이 진행된다. 이씨는 '대한민국 최초 우주인 이소연과 청소년과의 만남 행사'에 참석,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서 인터넷 공모한 청소년 150명과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되는 행사에서 이씨는 우주경험 에피소드 등을 들려주고

학생들과 질의응답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또 카이스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공대학교 등이 참가해 항공우주 과학발전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우주과학 체험기회도 마련한다.

문예 대전·예능 대회도 열려

◇참여행사=시와 수필, 사진, 서예작품을 공모해 시상하는 '청소년 문예대전'과 장애인 청소년들이 연극·합창·악기연주·마술 등 장기를 겨루는 '꿈돌이 청소년 예능대회'가 진행된다. 입상자들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상과 광주시장상 등이 주어진다.

청소년들의 꿈, 희망 등을 다뤘던 터라, 드라마, 뮤직비디오로 제작하는 청소년방송제도 열린다. '추적박람회'는 청소년들이 생생한 박람회 현장을 영상작품으로 제작, 솜씨를 겨루는 행사로 진행된다. 오는 29일부터 6월8일까지 작품을 접수하며 1~3위 입상자들에게는 전자사전, 닌텐도 게임기, MP3 등 경품이 제공된다.

또한, 초·중·고교생들이 다재다능한 끼와 재주를 선보일 수 있는 '별(Star)난 대회'도 열린다.

국제·영호남 400명 교류행사

◇부대행사=중국·일본·인도·아프가니스탄 등 10개국 100여명의 외국 청소년과 대구 및 타 시·도 청소년 400여명이 참가하는 '국제·영호남 교류 행사'가 열린다. 6월 1일에는 '아시아 청소년의 인권과 평화'를 주제로 한 청소년포럼이 열리고 아시아 청소년인권평화 광주선언이 채택된다.

저명 인사와의 만남 행사에는 청소년 벤처기업 '이누스'의 대표 김가영씨를 비롯해 '공부의 도사'로 불리는 서울대생 강성태씨가 참석한다.

이밖에 행사 기간 중 광주 청소년예술훈아리와 중·고교동아리, 빛고을코스프레연합회 등에서 합창, 댄스스포츠, 발리댄스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 문의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광주추진위 사무국 062-613-2490~3.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야외 판소리 발표회 빛고을국악전수관은 26일 오전 담양군 고서면 송강정에서 '24기 국악문화학교' 민요반 발표회를 가졌다. 40여명의 수강생들이 그동안 익혀온 판소리를 선보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무안 고속도로 어등산 구간 터널 명칭 '호남대 터널' 결정...광산구 반발

광주 광산구와 호남대학교가 터널 이름을 놓고 지루한 논쟁을 벌여온 광주~무안 고속도로의 터널이 결국 '호남대 터널'로 명명됐다.

26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오는 28일 개통되는 광주~무안 고속도로 광주~나주IC 구간에 놓인 광주 광산구 어등산을 지나는 이 터널의 명칭이 호남대 터널로 최종 결정됐다.

도로공사는 광산구와 호남대에 합의안을 마련해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양측이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다고 보고 지난해 5월 광주시 지명위원회가 낸 의견에 따라 터널 명칭을 '호남대 터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터널 이름을 호남대 터널로 하자는 시 지명위원회의 의견에 대해 광산구가 역사관광단지가 들어설 어등산을 홍보해야 한다고 '어등산 터널'로 지어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논란은 시작됐다.

호남대도 학교 홍보와 고속도로가 학교 부지를 지남으로써 입게 되는 소음 등의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터널 이름을 호남대 터널로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평행선을 달렸다.

터널 이름이 호남대 터널로 결정되자 광산구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광산구 관계자는 "최근까지 여러 차례 우리의 입장을 밝혔는데도 '아직 확정된 바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하는 도로공사가 갑자기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광주과기원 해수살균 정화설비 개발

광주과학기술원이 균을 없애고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해수살균 정화설비를 개발했다.

26일 광주과기원에 따르면 원내 과학기술연구원(소장 이선규)은 광주지역 살균 및 정화 분야 전문업체인 S&P환경기술(대표 심종섭)과 함께 살균은 물론 바이러스 감염까지 차단할 수 있는 광촉매 기반 해수살균 정화설비를 개발했다.

이 설비는 특히 광촉매 방식을 적용, 잔류소독물이 남지 않고 설치 용이하다는 점 때문에 실용화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연구소 측은 산화티탄, 산화아연, 산화주석 등에 자외선을 쬐었을 때 생기는 정공이 산소나 물과 반응했을 때 강한 산화력의 화합물을 형성, 유해물질을 제거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정삼필기자 camus@

광주 시티투어버스 무료 운행

'방문의 해' 맞아 5개월간...매주 금·토·일 2개 코스

2008년 광주·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광주시는 찾은 외래 관광객들을 위한 시티투어버스가 무료로 운행된다.

광주시는 26일 "지역 명소 홍보와 전통문화 체험 등을 위해 '광주 관광 시티투어버스'를 오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5개월간 운행한다"고 밝혔다.

45인승인 투어버스는 매주 금·토·일 등 사흘간 2개 코스로 운영되며 금·토요일은 오전 10시 송정역에서, 일요일은 오전 9시30분 광주시청에서 출발한다. 31일부터 열리는 소년체전과 10월 김치축제 등 주요 축제 기간에는 특별코스를 추가 편성, 운행하기로 했다.

투어 코스는 교통관문인 광주역·송정역·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을 거쳐 5·18자유공원, 시립민속박물관, 국립5·18민주묘지, 가사문학관, 담양죽목원, 총장사 등으로 짜여졌다. 평촌도에공방과 빛고을국악전수관 등에서는 체험관광도 즐길 수 있다.

시는 버스에 관광가이드를 배치, 안내할 계획이며 탑승객들은 점심값만 부담하면 된다.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의 경우 관광객이 개별적으로 선택해 이용하면 된다.

투어를 원하는 시민이나 관광객들은 탑승 하루 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사전 예약하고 버스 출발지나 경유지에서 시간에 맞춰 탑승하면 된다. 탑승예약은 광주시 종합관광안내

소(062-233-3399)나 송정역 안내소(062-941-6301)로 하면 된다.

시는 이와 함께 광주·전남 관광의 공동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운행중인 광주 인근 담양·화순지역 관광버스를 이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탑승장소를 코스에 반영했다.

아울러 시티투어버스 이용객을 위해 출발지 및 터미널, 역 등 탑승 장소에 임시승강장 표지판을 설치했으며 시내 주요 지점에도 안내 플래카드를 설치했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와 광주·전남 문화관광포털사이트(www.nam-dokorea.com) 등을 참고하면 된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서구청 직원들 카풀 유도 전용 주차장 등 각종 혜택

유가가 전정부지리 치솟는 가운데 광주시 서구가 에너지 절약에 직원들의 카풀(car pool)을 적극 유도, 눈길을 끌고 있다.

서구는 구청 직원들 사이에 카풀 출퇴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내부 전자문서 시스템에 '카풀 게시판'을 별도로 설치해 27일부터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카풀에 참여하고자 하는 직원들이 출근 시각과 장소, 경유지 등을 게시판에 올리면 같은 경유지에 있는 직원들을 서로 연결해 준다.

구는 출퇴근 시각과 타인과 맞춰야 하는 점과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한 부담 등으로 카풀을 꺼리는 직원이 아직도 많은 점을 감안, 구청 주차장에 카풀 차량 전용 주차면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종형기자 golee@

광주시 '1천만 그루 나무심기' 반환점 2005년부터 565만그루 식수

광주시가 꽃과 녹음이 있는 생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추진해온 '1천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이 반환점을 돌아왔다.

광주시는 26일 "올해 상반기 108만 그루를 포함 지난 2005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565만그루의 나무를 심어 '1천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이 목표의 절반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아파트 등 주거공간에 257만5천그루, 가로수와 가로화단, 수변 가로공간에 85만4천그루, 공원과 녹지, 산지 등 근린공간에 109만 3천그루, 기관·단체·학교 등에 112만 6천그루를 나무를 심어 목표 대비 56.5%의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올들어서는 가로수 불량구간 전면 갱신과 도심내 수형이 불량한 가로수 교체, 횡단보도 그늘숲 조성, 가로변 하층부 수벽 조성, 담장허물어 나무심기, 교통신호 녹화, 도시근리공원 생태숲 조성 등 10개 단위사업으로 구분, 녹화사업의 질적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정후식기자 who@

